

カトリック大学校学生感想文 (原文は日本語)

## 今年の宝物

パク ソンヒ

(韓国カトリック大学校言語文化学部 3 年 日語・日本文化専攻)

北海道での 2 週間の短期研修が終って気を抜く暇もなく、日本の長野県松本市(自然環境が美しいと言われている)にある信州大学の学生達を迎える準備で猫の手も借りたくらいだった。(実は、もう 3 年生の年寄りだし、2 年生がいたので、自分は何にも手伝わなかったのだが…。)

日本の大学との親善交流は私が 2 年生の時から、毎年 2 回くらいは行われている言語文化学部日語日本文化専攻の行事である。もうなれているはずなのに私の心はそうでもないようだ。今回はどんな学生達だろうか、一緒に過ごせる間にどんな思い出を作れるだろうか、お互いに気が合う良い友達ならいいな～など、行事の度にいつもドキドキしている自分に気付く。第一回のスピーチ大会をきっかけとして日本語会話のドアを開けた私だからこそ、このような交流はものすごく意味あることであった。

日本の小学生達は卒業するとき一人一枚、一番楽しかったことで、一生宝物に持っているものを書くと言った。もしうちの大学にそういうのがあったとしたら、私は多分、信州大学の友達と一緒に作った一週間、皆がお互いにお互いのことを見ながら笑えたことを、一生忘れられない私の大学時代の宝物として書くだらう。普通とは違う授業を受けた事や、知らないうちにスピーチ大会の司会者になっていて何の準備もなしに司会を担当したこと。また、高級会話の時間に信州大学の学生の前で悪魔の演技を見せたことなどだ。

今更だけど、うちの中野先生は、男の人なのに女の人の役をして、とても綺麗だったと思う。世の女達が焼きもちを焼く位……。また、どんなに考えても私の歩む道は俳優ではないかと思うのだけど……。どうだろう。

まあ、それはともかくとして、今回の交流で何よりも良かったことは信州大学とカトリック大学との交換協定が結ばれた事ではないだろうか。今回だけではなく、これからずっと交流が続くという事は、これからの後輩達にとって、嬉しいことであるに違いない。そして、信州の学生達にとっても自分の道をもっと確かめる良いきっかけになれ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最後に、私に良い思い出を作ってくれた信州の友達や交流ができるように力を尽くして下さった先生達に心から深く深く感謝いたします。

## 올해의 보물

박성희

(언어문화학부 일어일본문화전공 3학년)

홋카이도에서의 2주간 단기연수를 마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시간도 없이, 일본의 나가노현 마쓰모토시(자연이 아름답다고 하는)에 있는 신슈 대학의 학생들을 맞이하는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바빴다. (사실은, 이제 3학년인 노인네 인 데다가 2학년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 . .)

일본의 대학하고의 친선교류는 내가 2학년 때부터 매년 2번씩 행해지고 있는 일어일본문화의 행사이다. 벌써 익숙해져 있을 법도 한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번에는 어떤 학생들일까, 함께 지내는 동안에는 어떤 추억을 만들 수 있을까, 서로가 마음이 맞는 좋은 친구들이라면 좋으련만 ~등등, 언제나 행사 때마다 두근두근 마음이 설레 이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한다. 제1회 스피치 대회를 통해서 일본어 회화의 문을 열었던 나인만큼 이와 같은 교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 일본의 초등학생들은 졸업할 때 한사람이 한 장씩 가장 즐거웠던 일로, 평생 보물로 간직하고 싶은 것들을 쓴다고 들었다. 혹시 우리대학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마도, 신슈 대학의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던 1주간, 모두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면서 웃을 수 있었던 일들을 평생 잊을 수 없는 내 대학시절의 보물로 쓰겠지. 평상시하고는 다른 수업을 받았던 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피치대회의 사회자가 되어 있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회를 담당했던 일, 고급일어회화 시간에 신슈 학생들의 앞에서 악마 연기를 보여주었던 일들을 말이다.

지금 와서 말이지만, 우리학교의 나카노 선생님은 남자이면서도 여자 역할을 맡아, 너무 예뻐있던 것 같다. 세상에 모든 여자들이 질투할 정도로 . . .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배우가 아닌가 싶은데 . . . 어떨까. 어쨌든 그건 나중에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번 교류에서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신슈 대학하고 가톨릭대학하고의 교류협정이 맺어진 것이 아닐까 싶다. 이번 뿐 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류가 이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내 후배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신슈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자신이 나아갈 길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나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신 신슈 친구들과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신 선생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깊이깊이 감사 드립니다.